

## Verdict

시장은 NDX의 상대적 견조함(-3.96% 1개월 수익률)을 시·빅테크의 구조적 이익 성장이 매크로 둔화를 상쇄하는 '디커플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ICSA 21.0만 건의 역사적 저점을 근거로 경기 침체가 아닌 성장 둔화 속 선별적 강세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음. 금과 유가의 급등은 공급 측 충격의 합리적 반영으로, 연준의 금리 동결은 이를 인내하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며 위험자산 내 '품질 선별(Quality Rally)'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있음.

하지만 수집된 증거는 시장의 '빅테크 예외론' 내러티브가 과도하게 낙관적임을 시사함. 결정적 증거는 원자재 간 극심한 디버전스임: WTI가 1개월간 +37.78% 급등하며 고점 근접(-0.15%)인 반면, 경기 선행 지표인 구리(COPPER)는 같은 기간 -2.23% 하락하고 고점 대비 -8.59% 드로다운을 기록함. 금 역시 고점 대비 -11.39% 하락 중임. 이 조합은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적 슬로우다운 패턴으로, 공급발 에너지 충격이 실물 수요 위축과 동반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둘째, NDX(-3.96%)와 SPX(-4.23%)의 1개월 수익률 차이가 불과 0.27%p에 그쳐 '디커플링'이라 불리기에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이며, NDX의 고점 대비 드로다운(-8.77%)이 오히려 SPX(-6.45%)보다 깊어 기술주가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는 서사와 정면으로 배치됨. 셋째, VIX 25.25(공포 영역)와 USDKRW 1,508.08(고점 대비 -0.53%로 고점권 유지, 3개월 +4.69%)의 동조적 상승은 일시적 스파이크가 아닌 유동성 경색의 구조적 심화를 시사하며, 소비심리(UMCSENT 56.6)와 산업생산(INDPRO 102.551)의 동반 둔화와 결합하면 실물경제 타격이 이미 진행 중임을 뒷받침함. ICSA 21.0만 건의 안정은 고용이 전형적 후행 지표라는 점에서 현재의 안도감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음.

**Action:** NDX 및 미국 기술주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익스포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 WTI +37.78%의 급등이 소비 구매력 잠식을 통해 NDX에 시차를 두고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으므로 방어적 자산배분(현금·단기채)으로의 소폭 조정이 적절함.

**Invalidation:** 구리(COPPER) 가격이 2주 내 6.10달러(현재 대비 +8.2%) 이상으로 회복하여 경기 반등 신호를 확인하는 경우

**Risk Factors:** 매크로: WTI 102.68달러의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CPI 상승 가속 → 연준의 긴축 재개 가능성이 부상하며 슬로우다운이 경기 위축(contraction)으로 전이될 리스크, 기술적/포지셔닝: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역대 최대 자금 유출 속 NDX의 좁은 시장 폭(narrow breadth)이 크라잉딩 해소(unwind) 시 급격한 가격 조정을 촉발할 리스크, 이벤트: 중동 전쟁 확산 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에너지 공급 추가 차질 시 WTI 120달러 돌파와 함께 글로벌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패닉 매도 촉발 가능성

## Macro Picture

**Regime:** slowdown

**Key Themes:** Geopolitical Uncertainty (Iran War & Energy), Extreme FX Volatility (USDKRW 1,500 Breakout), Artificial Intelligence & Tech Resilience

**Dominant Narrative:**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연준이 금리를 3.50~3.75%로 동결하며 관망세를 보이거나, VIX 25.25 및 USDKRW 1,508.08 돌파로 시장 내 공포 심리가 확산되고 있음. 기술주(NDX 23,740.19)와 반도체 섹터의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금(4,712.8달러) 및 WTI(102.68달러)의 급등으로 인해 안전자산과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가 동반 상승 중임.

**Reality:** INDPRO 102.551(2월) 및 UMCSENT 56.6(2월)은 경기 확장세 둔화와 위축된 소비 심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CPI 327.46(2월)을 통해 높은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다만 ICSA 21.0만 건(3/21 기준)으로 고용 시장의 직접적인 충격은 아직 제한적이나, T10Y2Y 0.51(3/31)의 플러스권 유지와 급등한 원/달러 환율(최신: 1,508.08원, FRED 시계열 외)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경색 위험을 시사함.

## Hypotheses

**Key Question:** 글로벌 펀드 자금 유출이 단순한 지정학적 헤징인지, 아니면 NDX를 포함한 광범위한 위험자산 디레버리징의 초기 신호인지를 시장 폭(breadth)과 신용 스프레드의 방향성이 판별할 수 있는가?

## Tensions

NDX가 23,740.19를 기록하며 기술주가 견조한 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 순유출이 발생하는 극심한 수급 불균형이 포착됨.

0.80

Narrative: AI 및 빅테크 섹터의 강력한 펀더멘털이 매크로 불확실성을 상쇄하며 시장의 하방을 지지함.

Reality: 실제 자금 흐름은 위험 자산으로부터 급격히 이탈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들의 현금 확보 및 포트폴리오 재편 가능성을 시사함.

NDX SPX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돌파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ICSA)는 21.0만 건으로 고용 시장은 여전히 역사적 저점 부근임.

0.70

Narrative: 1,500원 돌파를 금융 시스템의 붕괴 전조이자 유동성 경색의 패닉 신호로 받아들여 VIX 25.25 수준의 불안감이 확산됨.

Reality: 금융 시장의 가격 지표는 위기 수준이나, 실물 경제의 핵심인 고용 지표는 아직 직접적인 타격이나 급격한 침체의 징후를 보여주지 않음.

USDKRW VIX

금(4,712.8달러) 및 WTI(102.68달러)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헤지 내러티브가 강화되고 있으나, 소비심리(56.6)와 산업 생산(102.551)은 경기 위축을 가리킴.

0.40

Narrative: 공급망 불안과 전쟁 리스크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견인하며 원자재를 통한 자산 방어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함.

Reality: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 및 소비 심리가 동반 약화되는 전형적인 슬로우다운(Slowdown) 국면으로, 고유가가 오히려 경기 하강을 가속화

WTI GOLD

## Eval Scores

PASS

Overall	<div style="width: 85%;"></div>	4.25
Tension	<div style="width: 60%;"></div>	3
Hypothesis	<div style="width: 95%;"></div>	5
Evidence	<div style="width: 95%;"></div>	5
Verdict Logic	<div style="width: 80%;"></div>	4

**Feedback:** 수치적 일관성과 데이터 정합성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됨. 첫째, 긴장(Tension) 요약에서는 환율을 1,530원 돌파로 명시했으나, 판정(Verdict) 섹션에서는 1,508.08원으로 기재하여 내부 수치가 충돌함(STRICT 감점 기준 적용). 둘째, 금 가격(\$4,712.8)은 현실 데이터와 괴리가 지나치게 커 가설의 신뢰도를 저하시킴. 셋째, 긴장 1에서 NDX를 '견조한 조정'으로 묘사했으나, 판정 근거에서는 NDX의 드로다운(-8.77%)이 SPX(-6.45%)보다 깊다고 분석하여 초기 내러티브와 최종 데이터 해석이 상충됨. 다만, 구리(Copper)와 에너지 가격의 디버전스를 활용해 스테그플레이션적 슬로우다운을 도출한 논리 구조와 구체적인 무효화 조건(Invalidation point) 설정은 매우 탁월함. 차기 생성 시에는 내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정합성 검증 루프를 강화할 것.

NDX, SPX



VIX



USD/KRW



GOLD, WTI, COPPER

